
 행정안전부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작성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담당자	국 장 이재철 팀 장 서인원
	2020년 6월 29일(월) 배부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721-1803 02-721-1819

성 명 서

-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관련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정부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등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외’한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 한국 정부는 일본 규슈(九州) 소재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일본 정부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했다.
- 이에 대해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근대산업시설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동원된 후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한 일이 존재하며,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 그러나 최근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일본 정부가 당초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강제동원 된 한국인과 관련해 학대와 차별이 없었다’는 인터뷰 등 왜곡된 전시물이 설치·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과 동시에 국내외 약 780여 만명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한 규슈(九州)와 야마구치(山口) 강제동원 작업장은 약 8백여 개소 이상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여 개소에 달한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광업, 일본제철, 스미토모, 히타치 등으로, 이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3만 7천여 명, 현지 사망 2천 5백여 명, 행방불명 6백 7십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이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등은 1945년 8월 9일 원폭 투하 당시 및 그 이후 한국인 강제동원자들을 복구 작업에 투입하여 나가사키(長崎)에서만 1만여 명의 사망 및 총 2만 여 명의 피폭 피해를 입었다.

○ 특히 하시마(端島)는 강제 노역된 한국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작업장이었다. 철저히 고립된 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폭력, 차별, 의사 사고 등은 지옥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국인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의 이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 강요된 죽음의 노동 등이 서려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강제 노역의 실태가 빠져 버린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내용은 근대산업시설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부정확한 역사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우리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신하여, 일본이 진실로 근대산업시설의 참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면 ‘빛의 이면에 드리워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과 그 역사적 사실 또한 올바르게 보여주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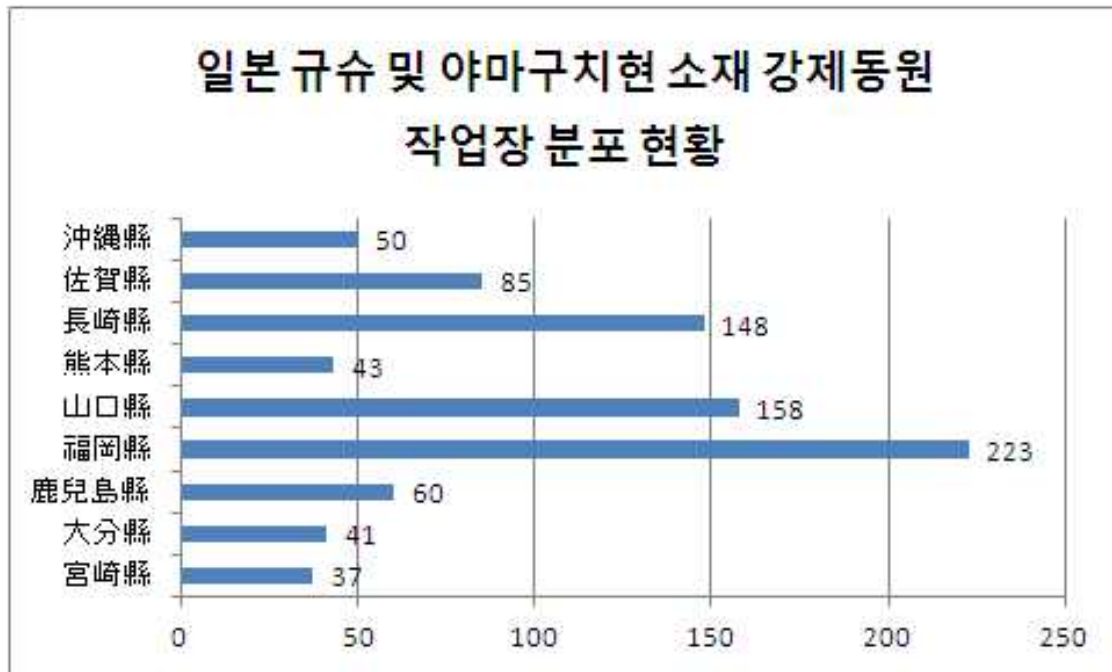
2020. 6. 29.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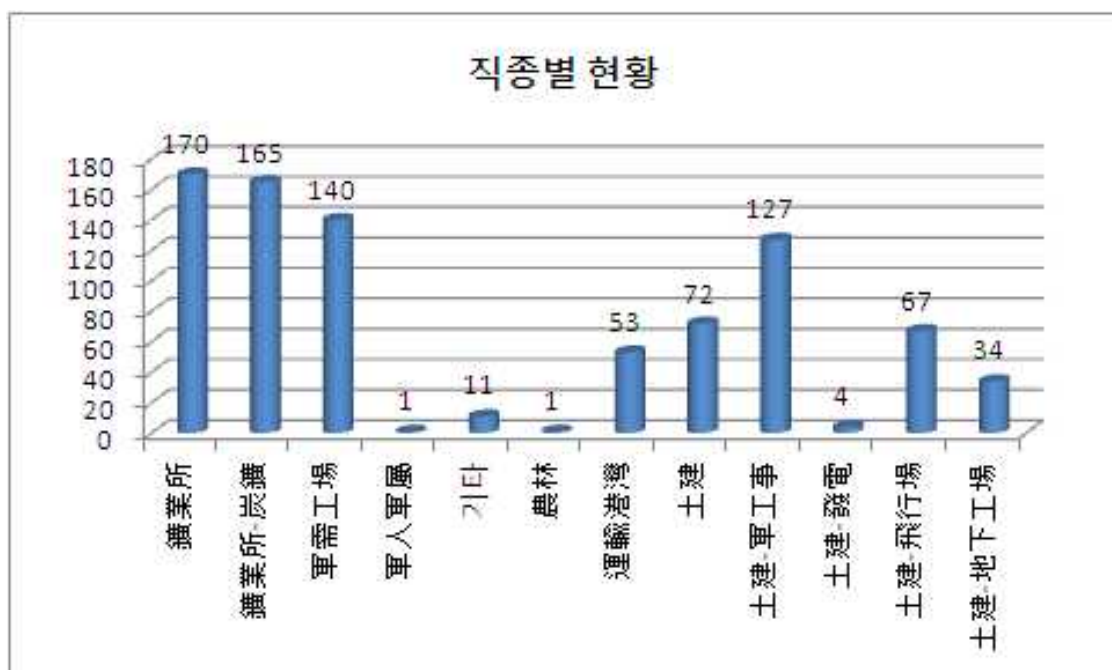
붙임 위원회 조사 일본 강제동원 작업장 실태(2012) 1부. 끝.

1 일본 규슈 및 야마구치현 소재 강제동원 작업장 실태

□ 전체 현황: 총 845개소



□ 직종별 현황: 군수공장 140개소





※ [참고] 군수공장 목록(2012년 7월 기준)

작업장명	기업명(당시)	현
延岡工場	旭(아사히)ベンベルグ絹絲(주)/日窒化學工業(주)	宮崎縣
津久見(쓰쿠미)鑛山	小野田(오노다)セメント製造(주)	大分縣
佐賀關(사가노세키)精鍊所	日本(니혼)鑛業(주)	大分縣
大分(오이타)工場	住友(스미토모)化學工業(주)	大分縣
坂ノ市 第2陸軍造兵廠 製造所		大分縣
福岡工場	高千穂製紙(주)	福岡縣
本社工場	九州(규슈)造船(주)	福岡縣
九州(규슈)兵器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今村(이마무라)製作所	福岡縣
大洋(다ियो)鐵工所	大洋(다ियो)鐵工所	福岡縣
大日本(다이니혼)乾溜工業	大日本(다이니혼)乾溜工業(주)軍需工場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大日本(다이니혼)乾溜工業(주)軍需工場	福岡縣
多多良製作所		福岡縣
東京製鋼(주)	東京(도쿄)製鋼(주)	福岡縣
小倉(고쿠라)工場	東京(도쿄)製鋼(주)	福岡縣
小倉(고쿠라)工場	東洋(도요)セメント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東海(도카이)鋼業(주)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東海(도카이)鋼業(주)	福岡縣
九州若松(규슈와카마쓰)工場	東海(도카이)電極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東海(도카이)電氣製造(주)	福岡縣
洞ノ海조선(주)	洞ノ海조선(주)	福岡縣

작업장명	기업명(당시)	현
苗武工業所 合資會社	苗武工業所 合資會社	福岡縣
若松(와카마쓰)造船	三菱(미쓰비시)重工業(주)	福岡縣
旭硝子	三菱(미쓰비시)化成工業(주)	福岡縣
三池(미이케)染料工業所	三井(미쓰이)化學工業(주)	福岡縣
三池工場	三池(미이케)合成工業(주)	福岡縣
小倉(고쿠라)製鋼 本社	小倉(고쿠라)製鋼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若松(와카마쓰)車輛(주)	福岡縣
若松(와카마쓰)車兩	若松(와카마쓰)車輛(주)	福岡縣
若港造船	若松(와카마쓰)港運(주)	福岡縣
若港造船所	若松(와카마쓰)港運(주)	福岡縣
小倉(고쿠라)陸軍造兵廠		福岡縣
小倉(고쿠라)工場	宇部(우베)興産(주)	福岡縣
昭和(쇼와)鐵工所		福岡縣
日華油脂	ニッ菱組(닛치비시구미)	福岡縣
日本鋼業 本社	日本(니혼)鋼業(주)	福岡縣
日本鋼業(주)	日本(니혼)鋼業(주)	福岡縣
八幡(야하타)製鐵	日本(니혼)製鐵(주)	福岡縣
九州(큐슈)工場	日本(니혼)曹達(주)	福岡縣
宗像工場	日本(니혼)曹達(주)	福岡縣
牧山工場	日本(니혼)化成工業/三菱(미쓰비시)化成工業	福岡縣
黑崎工場	日本(니혼)化成工業/三菱(미쓰비시)化成工業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日華(니카)制油(주)/日華(니카)油脂(주)軍需工場	福岡縣
大牟田(오무타)工場	電氣(덴키)化學工業(주)	福岡縣
(주)岡部鐵工所	(주)岡部鐵工所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주)今村(이마무라)製作所	福岡縣
(주)都留(쓰루)鐵工所	(주)都留(쓰루)鐵工所	福岡縣
(주)コタタ良製作所		福岡縣
鐵道 小森江工場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주)日立(히타치)製作所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주)日立(히타치)製作所	福岡縣
戸畑(도바타)工場	(주)日立(히타치)製作所	福岡縣
筑柴工業(주)	筑柴工業(주)	福岡縣
若松(와카마쓰)工場	枋木(도치기)造船	福岡縣
黑崎(구로사키)窯業(주)	黑崎(구로사키)窯業(주)	福岡縣
光(히카리) 海軍工廠		山口縣
製函工場	大洋(다ियो)漁業(주)	山口縣
徳山(도쿠야마)工場	徳山(도쿠야마)鐵板	山口縣
防府工場	東亞(도아)化學興業	山口縣
下松工場	東洋(도요)鋼板(주)	山口縣
彦島(히코시마)工業所	東洋(도요)高壓	山口縣
■島工■所	東洋(도요)高壓工業(주)	山口縣

작업장명	기업명(당시)	현
東洋(도요)紡績	東洋(도요)紡績	山口縣
徳山(도쿠야마) 海軍燃料廠		山口縣
徳山(도쿠야마)曹達		山口縣
徳山(도쿠야마)鐵板(주)		山口縣
宇部(우베)工場	理研(리켄)金屬(주)	山口縣
笠戸(가사도)船渠	笠戸(가사도)船渠(주)	山口縣
東洋(도요)鋼板		山口縣
林兼造船		山口縣
-	山陽(산요)電氣軌道(주)	山口縣
山陽(산요)펄프	山陽(산요)펄프	山口縣
彦島(히코시마)造船	三菱(미쓰비시)重工業(주)	山口縣
下關(시모노세키)造船所	三菱(미쓰비시)重工業(주)	山口縣
下關工場	森永(모리나가)製菓(주)	山口縣
三池(미이케)精鍊所 彦島工場	三井(미쓰이)鑛山(주)	山口縣
浜谷石灰工場		山口縣
城南造船鐵工(주)	城南造船鐵工(주)	山口縣
小野田(오노다)セメント製造(주)	小野田(오노다)セメント製造(주)	山口縣
小野田工場	小野田セメント(주)	山口縣
彦島(히코시마)工場	昭和(쇼와)石油(주)	山口縣
岩佐組工業所	岩佐組工業所	山口縣
藤山工業	宇部(우베)油化工業(주)	山口縣
宇部(우베)重工業(주)	宇部(우베)重工業(주)	山口縣
宇部(우베)鐵工所	宇部(우베)興産(주)	山口縣
宇部(우베)窯業工業	宇部(우베)興業(주)	山口縣
宇部(우베)セメント	宇部(우베)セメント製造(주)/宇部興産(주)	山口縣
日發産業(주)	日發産業(주)	山口縣
下松製油所	日本(니혼)石油(주)	山口縣
厚狹作業所	日本(니혼)火藥製造(주)	山口縣
日本海洋漁業統制 捕鯨部		山口縣
林兼(하야시카네)重工業		山口縣
神戸(고베)製鋼	(주)大林組(오바야시구미)	山口縣
長府工場	(주)神戸(고베)製鋼所	山口縣
笠戸(가사도)工場	(주)日立(히타치)製作所	山口縣
宇部(우베)工場	(주)日立(히타치)製作所	山口縣
笠戸工場	(주)日立(히타치)製作所	山口縣
小野田出長所	中國(주코쿠)配電(주)	山口縣
山口(아마구치)工場	太刀洗(다치아라이)航空機(주)軍需工場	山口縣
岩國(이와쿠니)工場	ミヨシ(미요시)化學■業(주)	山口縣
田ノ浦(다노우라)工場	東海(도카이)電極製造(주)	熊本縣
水俣工場		熊本縣
加藤(가토)製作所		長崎縣

작업장명	기업명(당시)	현
馬手ヶ浦(마테가우라)工業所		長崎縣
大橋(오하시)工場	三菱(미쓰비시)兵器	長崎縣
茂里工場	三菱(미쓰비시)兵器	長崎縣
住吉(스미요시)工場	三菱(미쓰비시)兵器	長崎縣
長崎(나가사키)製作所	三菱(미쓰비시)電機(주)	長崎縣
長崎(나가사키)製鋼所	三菱(미쓰비시)製鋼(주)	長崎縣
長崎(나가사키)製鋼所	三菱(미쓰비시)製鋼(주)	長崎縣
長崎(나가사키)造船所	三菱(미쓰비시)重工業(주)	長崎縣
長崎(나가사키)造船所 稻佐製材所	三菱(미쓰비시)重工業(주)	長崎縣
長崎(나가사키)精機工場		長崎縣
佐世保(사세보)海軍工廠		長崎縣
深堀(후카호리)造船所	川南(가와나미)工業(주)	長崎縣
香燒島(고야기)造船所	川南(가와나미)工業(주)	長崎縣
川南(가와나미)深堀(후카보리)造船所	川南(가와나미)深堀(후카보리)造船所軍需工場	長崎縣
溝田鐵工所	溝田鐵工所	佐賀縣
鹿島(가시마)工場	國民食糧(주)	佐賀縣
東亞(도아)工機(주)	東亞(도아)工機(주)	佐賀縣
木丹江목재工業(주)	木丹江목재工業(주)	佐賀縣
福田(후쿠다)製作所	福田(후쿠다)製作所	佐賀縣
昭和(쇼와)自動車(주)	昭和(쇼와)自動車(주)	佐賀縣
神崎(간자키)목재工業(주)	神崎(간자키)木材工業(주)	佐賀縣
神崎(간자키)工場	日本(니혼)斷熱工業(주)	佐賀縣
佐賀(사가)綿ネル(주)	佐賀(사가)綿ネル(주)	佐賀縣
佐賀(사가)自動車工業(주)	佐賀(사가)自動車工業(주)	佐賀縣
佐賀(사가)自動車 판매(주)	佐賀(사가)自動車 판매(주)	佐賀縣
(주)內田製作所	(주)內田(우치다)製作所	佐賀縣
(주)唐津(가라쓰)선거	(주)唐津(가라쓰)선거	佐賀縣
(주)大坪공작소	(주)大坪공작소	佐賀縣
(주)西唐津(니시카라쓰)鐵工所	(주)西唐津(니시카라쓰)鐵工所軍需工場	佐賀縣
(주)戶上電氣製作所	(주)戶上電氣製作所	佐賀縣
志田도자기(주)	志田도자기(주)	佐賀縣
浦之崎(우라노사키)造船所	川南(가와나미)工業(주)	佐賀縣
川南(가와나미)浦之崎造船所	川南(가와나미)浦之崎造船所軍需工場	佐賀縣
鹿島(가시마)工場	片山(가타야마)鋳■工業(주)	佐賀縣
鳥西工場	片倉(가타쿠라)工業(주)	佐賀縣
平田製油 合名會社	平田(히라다)製油 合名會社	佐賀縣
横尾鋳金鐵工所	横尾鋳金鐵工所	佐賀縣

②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 주요 작업장 현황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長崎)조선소

□ 개 요

- 소재지 :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県) 나가사키시(長崎市)
- 1857년, 일본 최초의 함선수리공장 ‘長崎鎔鐵所’로 설립.
1884년부터 미쓰비시가 경영하면서 ‘나가사키조선소’로 개칭
1887년 미쓰비시가 차용시설 일체를 매수, 민영조선소로서 다수의 함선 건조
- 1934년 미쓰비시중공업(주) 설립 및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나가사키 조선소’ 개칭
- 2003년, 메이지시대의 시설이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됨

□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상황

- 약 4,700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존재하였다고 추정됨
- 기술 습득 후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율이 높았음
- 원폭 폭심지와 3.2km거리에 위치하여 1945. 8. 9. 피폭피해를 입었으며,
원폭 투하 후 시내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입시피폭’ 피해를 입음

□ 위원회 신고건(2012년 7월 13일 기준)

- 미쓰비시중공업(주) 나가사키조선소 동원 피해자 결정 심의·완료건 약 100건
- 동원 중 사망 2건, 행방불명 1건
- 기업명을 기억하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업장명이 명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피해자 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미수금 관련 자료

- 위원회 입수 공탁금 자료에 3406건의 공탁금 859,770.78엔이 확인됨
(1948. 6. 2. 공탁)

일본제철(주) 야하타(八幡)제철소

□ 개 요

- 소재지 :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기타큐슈시(北九州市)
- 1901년 관영(官營)제철소로 조업 개시, 일본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제철소
- 1934년 일본제철(주)가 발족하면서 일본제철(주) 야하타(八幡)제철소로 개칭
-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에는 일본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 연합군이 폭격 목표로 설정하여 폭격이 반복됨.
- 1950년 일본제철(주)이 해체되면서 야하타제철(八幡製鐵)의 야하타제철소로 변경
- 1970년 신일본제철(주)이 발족하면서 신일본제철(주) 야하타제철소로 개칭

□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상황

- 일본정책문서에 의하면 철강업에 대한 조선인 강제동원은 1942년 3월부터 개시되었다고 하나, 1942년 이전부터 ‘모집’ 형식으로 동원이 이루어짐
- 1945.8월 해방 전까지, 일본제철(주)에 약 1만 여명의 조선인이 동원됨
- ‘위인정’ ①-3 「소위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中 「팔번제철소명부」에서 확인되는 조선인 노무자는 약 3,400명

□ 위원회 신고건(2012년 7월 13일 기준)

- 야하타제철소에 동원된 피해자로 결정된 심의·완료건은 약 483건
 - 공장 또는 기업이름을 기억하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업장명이 명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실제 피해자 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동원 중 사망자 18건, 행방불명 4건, 신고 당시 생존자 145명

□ 미수금 관련 자료

- 위원회 입수 공탁금 자료
 - 3,388건의 공탁금 269,529.93엔(1947. 1. 11. 공탁)
 - 452건의 공탁금 25,934.46엔(1947. 2. 6. 공탁)
- ‘위인정’ ①-3 「소위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中 「팔번제철소명부」에 미불금 기록 있음

미쓰비시(三菱)광업(주) 하시마(端島)탄광

□ 개 요

-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県) 나가사키시(長崎市) 소재
- 바다 밑 지하에 갱도를 개발한 해저탄광이며 메이지시대부터 미쓰비시가 경영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한 탄광으로 알려짐
- 나가사키항 남서 해상에서 약 17.5km 거리에 위치한 하시마섬 전체를 탄광시설로 개발
- 섬의 크기는 남북으로 약 480m, 동서로 약 160m, 면적은 약 6.3ha
- 1870년경부터 노출탄을 대상으로 채굴이 개시, 1890년 미쓰비시가 매수
- 탄광이 번성하던 때는 작은 섬에 5,300명의 주민이 거주하여 수도 도쿄 이상의 인구과밀지역이었으나 1974년 폐광 후 무인도가 되어 현재 폐허 상태
- 섬 전체의 모습이 군함을 닮았다고 하여 ‘군함도’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현재 나가사키시 당국은 하시마의 아파트가 일본 최초(1916년)의 철근 콘크리트 주거용 건물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임

□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 상황

- 일본 패전(1945. 8월) 직전에 약 500~600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존재하였음
- 외딴 섬에 격리되어 위험한 해저 채탄 작업을 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탈출 도중 익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이 생존자 진술에서 확인
- 하시마탄광의 조선인 노무자들은 나가사키시에 원폭이 투하된 후, 시내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도 함

□ 위원회 신고건(2012년 7월 13일 기준)

- 하시마탄광에 동원된 피해자로 결정된 심의·완료건은 총 134건
 - 탄광 이름을 기억하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작업장명이 명확하게 처리 되었으므로 실제 피해자 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동원 중 사망자 28건, 행방불명 1건, 신고 당시 생존자 46명
- 사할린 ‘전환배치’ 피해자 23명

□ 미수금 관련 자료

- 현재 하시마탄광 관련 공탁금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위인정’ ①-2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에 하시마탄광에 동원된 일부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이 기록되어 있음
 - 인근 다카시마탄광 노무자와 구분 없이 2311명의 미불금이 함께 기록되어 하시마 탄광만의 정확한 기재 인원 산출은 불가능